

■ 영화평 ■

피아니스트의 전설 -이민선 위의 한 정주자 이야기-

이 경 일

아주대학교 이주문화연구소센터

은은하게 때로는 걱정적으로 쉴 새 없이 컷전에 아른거리는 피아노 선율과 간간히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이 영화를 보고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대서양으로 오가는 여객선 위에서 평생을 보내며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나인틴 헌드레드(Nineteen hundred, 1900)의 일대기.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 인상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음악영화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엔리오 모리코네(Enrio Moricone)라는 저명한 영화음악의 거장이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영화를 수놓고 있으니 말이다.

피아노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에피소드들, 그와 어울려서 등장하는 기교적 여흥과 그 덕분에 얻게 되는 눈과 귀의 즐거움은 극적 재미를 배가시키는 영화의 프레임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격랑에 요동치는 배의 흔들림에 맞추어 레코드판처럼, 진자처럼 혹은 왈츠처럼 율동하며 춤추는 피아노 위의 연주 모습. 재즈의 창시자로 소개되는 젤리 롤 모튼(Jelly Roll Morton)과 선상에서 벌이는 긴장감 가득한 피아노 연주대결. 주인공의 다양한 재즈 변주에 맞추어 변화무쌍하게 춤 종류를 바뀌어 가며 벌어지는 무도회. 이 장면들만으로도 관객이 나인틴 헌드레드와 피아노 연주에 시선을 맞추어 몰입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시네마 천국, 말레나 등으로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이탈리아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Giuseppe Tornatore)는 이러한 눈과 귀의 요깃거리들을 쏘시게 삼아 가공의 피아니스트의 행적과 그가 풀어놓는 유희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담아 전달하고자 했을까? 먼저, 서양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에 눈길을 주면서 많은 흥미로운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순으로 배열해보면, 이야기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버지니아 호의 1등칸 연회장에서부터 시작된다. 1900년 1월 1일에 이 배의 기관실에서 일하는 흑인노동자 ‘데니 부드맨’은 그 곳의 피아노 위에 놓인 레몬 상자 안에서 한 아기를 발견하고는 1900년을 기념하여 아기의 이름을 ‘T.D. 레몬 나인틴 헨드레드’라고 짓는다.

이러한 영화의 시공간적 설정은 이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대서양 횡단과 연관해서 많은 것들을 화면 속에서 집어볼 수 있게 해준다. 아기가 발견된 방 바깥을 나서기만 해도 버지니아 호가 유럽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민선이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난다. 배가 여러 등칸(보통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태우기는 했지만, 승객의 대부분은 햇빛도 잘 비추지 않는 배의 아래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이민자들이었다. 나인틴 헨드레드가 연정을 느꼈던 소녀의 아버지인 농부가 말하듯이, 이들은 각박한 자신들의 “운명과 싸울 각오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바다를 뒤덮은 안개 속에서 기회와 풍요의 땅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자유의 여신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연신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외치며 신천지에 도착한 것을 환호했다. 주인공 나인틴 헨드레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이민자의 아들은 아닐지라도(암시되기로는 유명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인 타노 다모토Tano d’Amato의 아이), 이민선의 여정에서 탄생·성장했기에 늘 이주의 애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관찰자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의 단초가 된 1900년 전후 10-20년간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대륙 간 이주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이탈리아인들만을 예로 들더라도, 많은 수가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1890년-1900년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1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1900-1920년 사이에 그 수는 4백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주의 사회경제적 원인 말고도, 영화 속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버지니아호처럼 증기를 동력으로 한 대형 철제 여객선의 등장이라는 기술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했음을 곁가지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는 토르나토레가 이탈리아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들을 선보

피아니스트의 전설

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바다와 대륙 간 이주를 배경이주를 여러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되물으려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과 배경이그리고 용매인 음악까지도 이주/정주라는 대립되어 보이는 주제를 엮매임/자유로움이라는 내면의 문제로 바꾸어 다가가기 위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원제를 이탈리아어로 ‘대양 위의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뜻의 ‘La leggenda del pianista sull’oceano’로 내놓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영화를 영어로 찍었다는 사실에서부터 경계 넘기의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인공의 독특한 처지는 이러한 넘나들을 위한 기본 장치다. 이 영화는 1900년에 출판된 이탈리아 작가 알레산드로 바리코(Alessandro Barico)의 원작 소설 『노베첸토(Novecento)』를 각색해서 스크린에 담았다. 사실 배 위에서 태어나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본 적 없는 주인공 나인틴 헨드레드의 모습은 특이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선상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만을 보고 자라, 바다 밖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의 처지는 삶의 대부분을 물에서 지내며 물 위에서 거치듯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인간과는 동떨어진 존재다.

토르나토레는 이러한 전도된 처지와 편협한 경험의 인간을 많은 역발상과 상식을 뒤집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매개로 삼고 있다. 가령 “바다에서 내리면 대양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민자 농부의 말은 역설인 동시에 우리가 잊고 사는 일상에 대한 새삼스런 되물음일 수 있다.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인틴 헨드레드에게 그 말은 “육지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마치 오랫동안 바다 위의 세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바다 위에서 본 육지를 잘 모르듯 말이다.

이러한 전도되고 극단적인 편협함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나인틴 헨드레드는 자신의 배를 들고나는 많은 여행객들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바를 토대로 바깥세상을 상상한다. “어젯밤에 아름다운 나라에 갔었지”로 시작되는 그의 도시 이야기들은 하나의 세계를 머릿속에서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재구성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직접 경험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비웃는 듯하다.

그럼에도 그의 절름발이 세상경험은 기대감의 한편에 낯설음을 보여준다. 육지에 발을 딛으려다 돌아오면서 “내가 못 보던 세상이었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어”라는 그의 고백은 경험 밖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난다. “전혀 몰랐어, 세상이 얼마나 큰 지. 얼마나 무서운 지. 피아노를 봐. 어떤 피아노도 건반은 88개야”라는 말에 반해서 배 밖의 세상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수백 만개의 건반”으로 상징되는 미지의 세상이다. 바깥세상 경험의 부재와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나인틴 헨드레드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 세계 속의 안주 혹은 목표 부재는 그와 나머지 일반인,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이민자들이 다른 선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구”라는 멘트는 주인공의 심리상태로 확인된 분명한 선긋기라고 할 수 있다.

나인틴 헨드레드의 극복할 수 없는 처지와 경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배는 여행자들과 주인공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며, 대양을 건너는 모든 여행자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배는 인종과 국적(여러 서양언어로 말하는 백인 여행자들뿐 아니라 일본어를 말하는 여행자의 모습도 스쳐간다),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여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과 이동의 공동체라는 표면적인 공통점 하부에, 배 안에는 부유한 여행객과 가난한 이민자들을 나누는 선실의 구분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배는 계급과 처지에 의해서 규정된 공간적 분리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음악은 이 모든 차별과 간난시름을 잊게 만드는 좋은 휴식처이다. 나인틴 헨드레드의 천재적인 피아노 연주는 배 안의 모든 승객과 선원들은 기쁘게 한다. 한층 더 나아가 음악은 장르와 음조를 달리할 지라도 모두가 어울리며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셈이다. 악기 상인은 낯선 방문객인 맥스(나인틴 헨드레드의 친구)의 트럼펫 연주에, 부자들은 어린 나인틴 헨드레드의 피아노 연주에 감동하여 마음을 연다. 모든 이들은 음악을 통해서 국적, 인종, 성별과 연령을 떠나서 잠시나마 흥겨움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하지만 음악이 보편적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은 항해가 진행되는 동안일 뿐이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순간, 승선객들의 눈과 귀는 모두 육지를 향해 있고 나인틴 헌드레드의 피아노는 외로이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항해가 끝나면 승선객인 이민자들은 미래의 정주 공간인 물으로 떠나고, 배의 정주자인 나인틴 헌드레드는 다시금 새로운 상대들과 새로운 여행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늘 반대로 영원한 여행자의 처지인 나인틴 헌드레드의 삶은 언제나 역설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배와 함께 그의 죽음은 그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익숙함이 자 편안함의 표현인 것이다. 차라리 미지의 것이 주는 두려움을 홀로 견어낼 수 있다면 진정 용기 있는 자일 것이다.

e-mail:leoandrius@yahoo.com